

● 소리의 형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

(A Study on the expression shape of the sound)

I. 음향적 영역과 조형 예술적 영역의 정의

- 시각 조형과 음악의 영역은 예술의 영역으로서 미(美)의 창조를 근본목적으로 한다.
- 두 예술적 영역은 시각과 청각이라는 독자적인 감각기관으로 운용이 되지만 연관되는 다양한 미적 감적을 수반한다.
- “미디어 시대”가 도래하면서 Interactive 멀티미디어, Hypertext의 특성이 부과, 조형 이미지와 음향적 이미지의 접합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게 대두
- 본 연구에서는 음향적인 영역과 조형 예술적인 영역의 상호연관성과 융합가능성을 논함.

II. 음향적 영역과 조형 예술적 영역의 상호연관성과 융합 가능성

1. 의미 있는 정신적인 영역의 표현과 전달

- 고대 중국의 음악이론서 “樂學軌範”(악학궤범)
“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에게 머물며, 텅 빈곳에서 나와 자연 안에서 이루어진다.”
- 음악은 인간의 정신 또는 영혼의 극도한 상태
- 비어 있는 곳에서 나온 소리는 공기 중, 즉 자연 안에서 퍼져나감으로 완전해짐.
- 음악의 정신적인 면, 음향학적인 면을 강조.
- 칸트 “ 예술의 근원은 사람의 감정에 있다”, 언어와 같은 논리적 개념이 아닌 인간정신의 심리적 감동에서 생겨 나오는 것
- 아노르노 “정신은 예술작품의 Ether (화학반응), 정신에 이해 매게되지 않은 감각적인 것은 예술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“
- ※ 공간예술인 조형 예술 역시 시간예술인 음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정신의 산물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존재.
- 정신만을 강조한 예술은 완결성과 객관성에 모순을 가짐.
- 벨(형식주의자) “미학의 모든 체계는 독특한 정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, 이러한 정서를 일으키는것이 예술작품,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예술작품으로 인해 새롭게 일으켜지는 독특한 정서가 있음, 이것이 미적 정서” - 의미 있는 형식
- 의미 있는 정신적 형태로서의 의미전달이 예술적 전달
- 결국 의미의 전달 수단으로써 예술적 영역이 나누어 짐.

2. 예술로서의 공감각

- 인간의 정보 획득 : 시각(83%), 청각(11%), 후각(3.5%), 촉각(1.5%), 미각(1%)
- 어떤 자극으로 일어난 한 감각과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서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.
- 복합감각은 둘 이상의 감각이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지만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둘 이상의 감각이 이미지의 단위원에 공존 하는 것.

Synesthesi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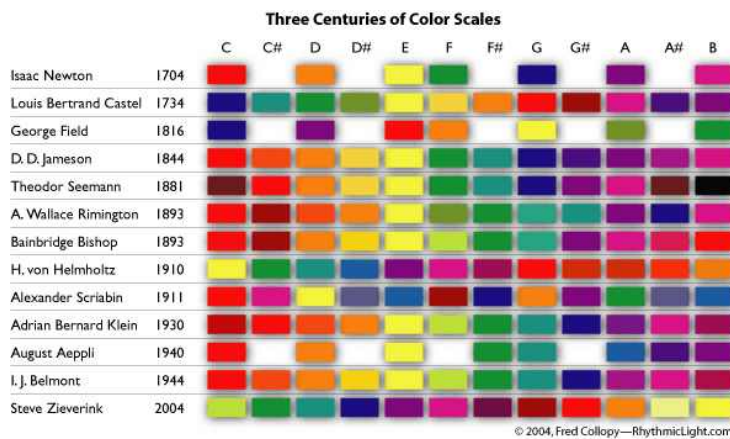
-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 - 주홍색을 트럼펫 소리가 나는 색으로 표현했던 맹인의 연구부터 시작.
- 랭보, 세잔등 많은 예술가의 표현

3. 연상작용

- 카르보스(Theodor F. Karwoski), 오드버트(Henry S. Odebert)의 공감각 연구
 - : 음악을 들을 때 색채반응을 연구
 - : 60%이상의 학생이 색채를 경험, 39%는 색을 볼 수 있음, 31% 색채반응을 느낌
 - : 느림 음악은 파란색을 연관, 높은 음색은 밝은 색, 낮은 음색은 어두운 색
- 음악과 미술의 공통된 용어
 - : Tone(음색, 색조) , Pitch(음고, Pitch) , Volume(음계, 양감) , Color (음색, 색상) Chromatic (반음계 또는 색채)
- Christopper Word 소리의 색채 연상

들릴락 말락한 속삭임	진주색
깃발이 펄럭이는 소리	파란색
오보에(Oboe)	자주색
나뭇가지를 스치는 맑은 바람소리	초록색
파이프오르간	노란색
베이스(Bass)	갈 색
금관악기	주황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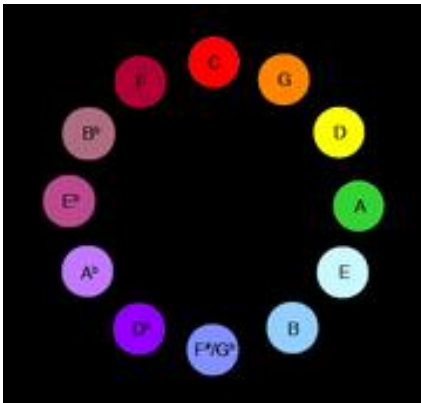
- Newton : 17세기 무지개의 색을 7음계와 연관
Do(빨간색), Re(주황색), Mi(노란색), Fa(초록색), Sol(파란색), La(남색), Si(보라색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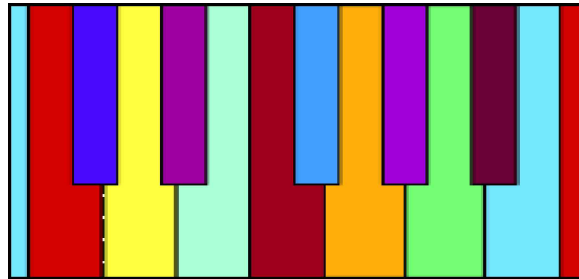
Synesthesia



- Alexander Scriabin - Prometheus(불의 신)에서 Luce라는 Color Organ사용



Fifth Cycle of Scriabin's Color



Color of Scriabin



The performance of "Luce" in 1915



The sketch of scenery for "Prometheus",
by A. Lentulov (1918).

Synesthesia



- 색과 음의 사이에는 미를 감지하는데 색채연상이 동시에 일어남
- 회화작품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색채 하나하나의 연상은 물론 표제와 상징적 내용, 심적인 추상성의 연상 또한 중요함.
- 연상작용은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킴.
- 경험에 의해 1차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선행된 감각, 지식, 감정, 이미지 등에 의해 종합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

III. 시각조형에 나타난 음향 표현

1. 만화의 소리표현

- 기원전 3만년 , 인류의 움직임에 담은 최초의 그림 형성 (알타미라 벽화)



Altamira Cave

- 움직임의 표현을 위해 다리 네 개를 그리고 또 다른 다리를 그림
- 애니메이션(일러스트)의 창작을 위해서는 단순기능 이상의 상상력과 창작력의 내재 필요
- 음향적인 이미지는 만화 이미지의 촉매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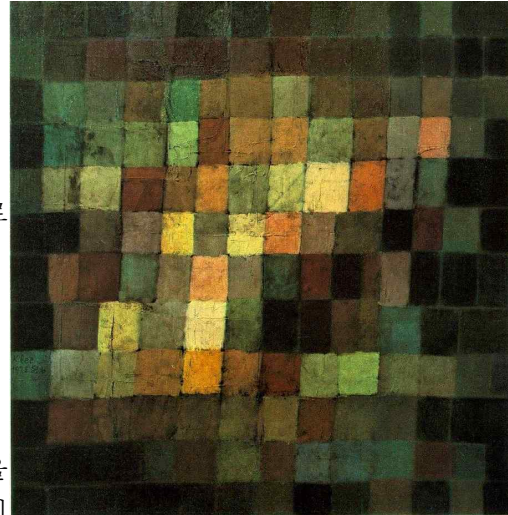




2. 시각조형

- 조형예술영역과 음향예술영역에 대한 뚜렷한 추구영역, 표현영역, 시·공간영역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두 영역의 연결표현의 시도는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예술언어로 표현되어져 왔음.

- Paul Klee : 예술가는 눈에 복사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보이게 하는 것
- 정사각형의 연결 속에서 리듬감 추출.
- 비가시적인 영역으로서의 음악에 대한 정의로 해석 가능
-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을 나타냄.
- 음악은 구체적 사실 묘사의 어려움을 내포
- 구체적인 것과 결부 시키려는 인간 본성의 노력으로 인해 상상력 도출
- 음악적 영감의 상태는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가진 매체를 통해서도 심적 표현과 미적 가치 창조 및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



Paul Klee

"Ancient sound abstract on black"

- Wassily Kandinsky : 음악의 형상적 표현에 많은 관심을 표출
- 인간의 내적 필연성, 정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추상의 도래는 필연적이라고 주장
- 화면의 자율적 색채와 형태의 선적 흐름 등의 시각적 내용이 내적인 음향으로 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
- “숨겨져 있는 것이 더 강하다” 외적 형태안에 숨어 있는 내적 필연성을 끌어 냄



- 사공우 “춤”
- 운율
- 움직임
- 시간의 흐름
- 리듬감
- 소리의 시각화 or 이미지의 청각화

사공우 “춤”



IV.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연결

- 시각조형적 영역인 이미지와 음악 혹은 음향의 이미지의 결합이 비교적으로 쉽게 이루어 지는 영역은 영상의 영역
- 영상에 있어서 음향은 영상의 촉매제 역할

1. 용어의 공유성

- 음악과 미술이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술이지만 서로 의미를 교환해 갈수 있는 용어 존재

2. 소리에 의한 형태의 연상작용

- 소리의 언어화 대신 색과 형으로 시각화 시킴
- 이미지의 단조로움 탈피

3. 음악과 그림에 있어서 조화에 대한 고찰

- 소리의 시각형태화가 단지 서로 잘 어울리는데 대한 규칙만을 다루게 된다면 일종의 미적 에티켓에 한정될 수 있음
(일종의 영상음악 - 체계적인 관계가 아닌 단순한 이미지의 구체화, 감성에 치중)
-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영상과 이미지의 관계 성립 중요

4. 계조에 관한 요소별 탐구

- 색의 구문론(syntax of color)
- 다양한 색상의 종류에 비해 음악적 표현은 한계가 있음(12음)
- 하지만 음악적 진행에 따라 색과의 조화는 심리적인 현상(교육&경험&감각)으로 연관 지을수 있음

5. 파장으로서의 색과음

- 주파수별 분석

V. 결론

- 서로 다른 두 영역의 융합과 시도는 영상 예술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
- 독일 심리학자 베르너(H. Werner) : 연령이 낮을수록 자주 나타남
-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.
- 운동성. 신체감각과 관련된 부분만이 두 감각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결론
- 음향은 영상과 더불어 심상에 공감대 형성
- 좀 더 조직적인 접근 필요